

## 보도자료

2010년 8월 2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750-2530)  
통신경쟁정책과 김미정 사무관(☎750-2538) mjkim@kcc.go.kr

### 상반기 통신사업자 마케팅 및 투자비 집행 실적

- 상반기 마케팅비는 무선 26.3%, 유선 10.3%로 무선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초과  
· 6월에는 무선 마케팅비가 21.9%수준으로 감소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 투자는 연간투자계획의 35.3%, 전년 동기 대비 1,500억원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통신사업자(KT, SKT, LGU+, SKB)가 제출한 '10년 상반기 마케팅비 및 투자비 집행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13. 발표한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반기별로 마케팅비 집행실적을 점검·발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집계 결과, 상반기 무선부문의 마케팅비는 총 3조 1,168억원으로 매출액(총 11조 8,547억원)의 26.3%를 차지하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으며, 유선부문 마케팅비는 총 6,973억원으로 매출액(총 6조 7,647억원)의 10.3%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10.5.13.발표)

- 마케팅비 : 유·무선 각각 '10년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도록 하되, WBro, IPTV 등의 활성화를 위해 0.1조원 한도 내에서 유무선 이동 허용
- 적용제외 : 광고선전비는 마케팅 규제 대상에서 제외

무선시장은 1/4분기에는 아이폰 출시 등에 따라 마케팅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었으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6월 마케팅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22%보다 낮은 21.9%로 감소하였다.

한편, 상반기 투자 실적은 2조 1천억원으로 연간투자계획(5조 9,628억원)의 35.3%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은 특히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및 초고속인터넷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가 3G, Wibro 네트워크 및 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1조 1,7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LGU+는 4,800억원, SKT 3,700억원, SKB 800억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에도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투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마케팅비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마케팅 과당경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케팅 과당경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

## ‘10. 상반기 주요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및 투자비 현황

< '10.1~6월 유·무선 마케팅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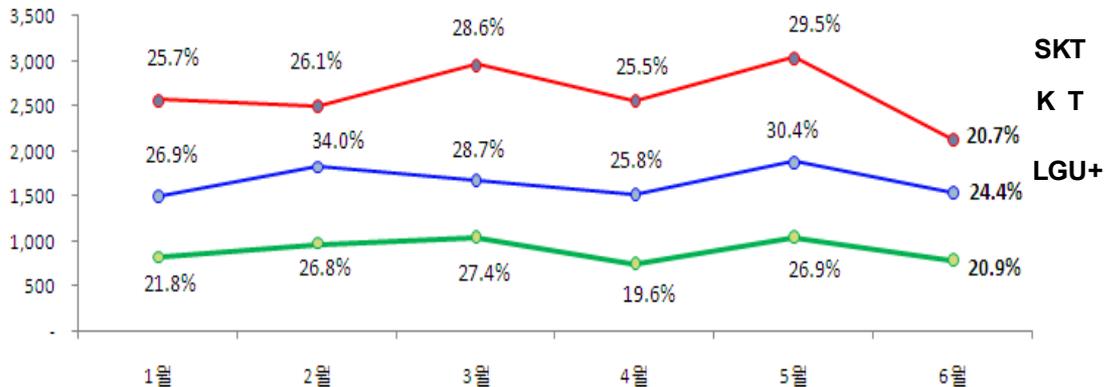
(단위:억원, 비율:%)

구분	무선							유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10	매출액	19,343	18,622	20,014	19,804	20,405	20,359	118,547	11,027	10,913	11,520	11,095	11,341	11,751	67,647
	마케팅비	4,892	5,316	5,687	4,842	5,975	4,456	31,168	1,042	1,060	1,405	1,231	1,062	1,173	6,973
	마케팅비율	25.3	28.5	28.4	24.4	29.3	21.9	26.3	9.4	9.7	12.2	11.1	9.4	10.0	10.3
'09	마케팅비율	22.6	23.5	24.2	26.3	33.1	32.6	27.2	10.6	12.8	16.2	13.6	14.4	15.4	13.9

\* 자료 : 통신사업자 제출자료 (매출액 : 서비스매출액 기준, 마케팅비: 광고선전비 제외)

억원

< '10년 상반기 무선부문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추이 >



※ KT 6월 실제 무선마케팅비 비율은 24.4%이나, KT는 무선마케팅비 중 240억원을 유선부문으로 이전하여 무선 20.6%로 가이드라인을 준수  
(가이드라인 : 연1천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마케팅비 이전 허용)

< 통신사업자별 투자 실적 >

(단위:억원)

구분		KT	SKT	LGU+	SKB	합계
투자계획	'10 투자계획	28,000	17,500	11,128	3,000	59,628
투자실적	집행액 기준	11,712	3,736	4,811	811	21,070
	(연간계획대비)	(41.8%)	(21.3%)	(43.2%)	(27.0%)	(35.3%)
* '09 상반기 투자실적(집행액)		6,219	6,670	4,807	1,851	19,547